

2026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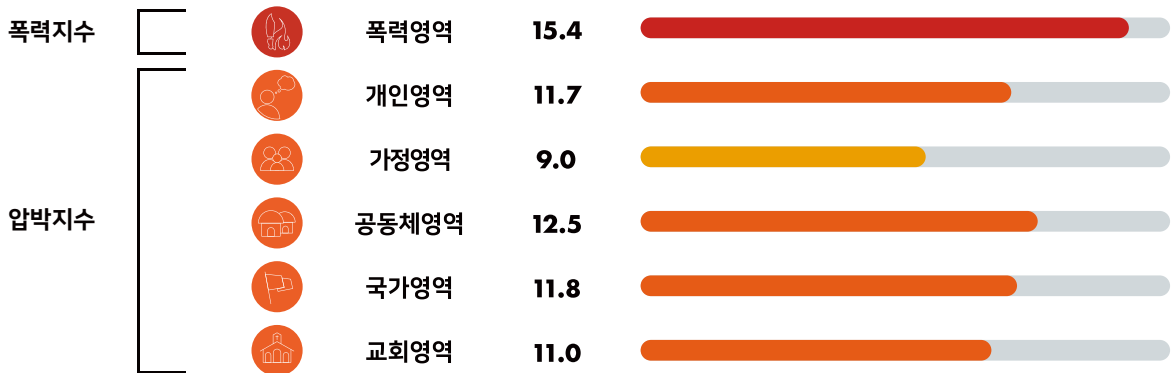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멕시코 (MEXICO)

기독교 박해지수
30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x16.7=100).

중요한 발견

범죄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멕시코에는 오랫동안 폭력과 공포가 가득한 분위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기독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은 범죄 조직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거나 카르텔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치안 불안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신앙 공동체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거의 없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토착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종교 관습, 즉 흔히 가톨릭과 결합된 혼합주의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적절한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벌금, 구금, 기본 서비스 이용 거부, 강제 이주를 겪는다. 한편 결혼, 가정, 생명에 관한 기독교적 견해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갈수록 더 면밀히 감시되고 제한된다.

멕시코 (MEXICO)

국가 정보

지도자 :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파르도 대통령

인구 : 130,301,000명

기독교인 수 : 124,066,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연방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124,066,000	95.2
불가지론자·무신론자	4,564,000	3.5
민족 종교	1,368,000	1.0
기타	303,600	0.2
합계		100%

출처²

2024년 6월 세인바움이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CNN, 2024년 10월 1일). 그의 승리는 행정부 권한이 강화되고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었으며 공공 치안에 대한 군부의 통제가 확대되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유산을 더욱 공고히 했다(The Dialogue, 2023년 11월 10일). 국가방위군의 군사화 시도와 선거 제도 변경 같은 일부 논란이 된 개혁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세인바움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 상당 부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선거는 정치적 폭력(ACLEDA, 2024년 7월 2일), 조직범죄의 개입, 자원 오용으로 얼룩졌다. 이러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종교기관, 특히 가톨릭교회는 '평화를 위한 약속(Commitment to Peace)' 같은 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했으나(Vida Nueva Digital, 2024년 6월 5일),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UC, 2025년 5월).

제도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는 2025년 6월 멕시코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사법부 선거를 실시하면서 더욱 커졌다. 대법관 9명을 포함한 2,600명 이상의 판사가 국민 투표로 선출되었다. 이 과정은 낮은 투표율과 논란이 된 후보들로 인해 비판을 받았으며, 사법부의 정치화와 자율성 악화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OAS, 2025년 6월 6일).

기독교는 멕시코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로마가톨릭이 가장 큰 교단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시민사회의 압력으로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표현할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판결과 법률은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를 제한하고 공공장소의 종교 상징을 규제하며 결혼, 가정, 생명 문제에 대한 신앙 기반의 견해를 제재해 왔다. 신앙에 근거한 가치를 옹호하는 기독교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법적 불이익(Excelsior, 2025년 3월 2일), 검열, 대중의 적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만연한 폭력과 카르텔 통제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범죄를 규탄하고 평화 구축을 지원하며 무장 해제 노력에 기여하고(EI Pa s, 2025년 1월 10일), 지역 분쟁을 중재해 왔고(Detroit Catholic, 2024년 12월 12일), 그 결과 살해(OLIRE, 2024년 10월 25일), 협박, 갈취(Zenit, 2025년 6

¹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² 기타(Other)는 합계가 100%가 되도록 하기 위해 표에 개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범주를 의미한다:

Gina A. Zurlo 편,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2025년 4월 열람.

월 22일), 공격의 표적이 된다. 토착 지역에서는 조상 관습을 거부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차별과 폭력을 겪는다(The Pathway, 2024년 8월 29일). 이러한 어려움에도 교회는 개인적·제도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사회를 섬기고 있다.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주요 카르텔과 지역 분파는 멕시코 전역에서 활동하며 영토를 통제하고 치안 불안을 부추긴다. 모든 주에 걸친 이들의 존재로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평화를 증진하거나 카르텔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들의 취약성이 커진다.

치아파스주(Chiapas), 게레로주(Guerrero), 이달고주(Hidalgo), 할리스코주(Jalisco), 오아하카주(Oaxaca), 푸에블라주(Puebla), 산루이스포토시주(San Luis Potosí), 베라크루스주(Veracruz), 유카탄주(Yucatán), 사카테카스주(Zacatecas)에서는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이 공동체가 부과하는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배제, 서비스 이용 거부, 강제 이주가 포함되며, 국가의 보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과나후아토주(Guanajuato), 할리스코주, 모렐로스주(Morelos), 멕시코시티, 멕시코주(State of Mexico), 오아하카주, 케레타로주(Querétaro), 산루이스포토시주, 타마울리파스주(Tamaulipas), 베라크루스주에서는 교회 기물 훼손과 신앙에 근거한 견해를 표현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가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된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출신 기독교인 공동체

이 범주는 WWL 점수 산정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집단은 주로 로마가톨릭 신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규모 정교회, 장로교, 성공회 공동체도 포함된다. 이들은 조직범죄와 지역의 부패로 인한 적대와 압박을 받으며, 성직자들도 표적이 된다. 토착 지역에서는 일부 신자들이 신앙을 전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또한 공적 참여를 침묵시키려는 시도와 교회 기물 훼손 등 갈수록 커지는 세속주의적 불관용에도 직면한다.

기독교 개종자

이 집단에는 교단을 옮긴 개종자들도 포함된다. 토착 혼합주의 전통을 떠났거나 범죄에 연루된 생활 방식을 버린 사람들은 협박, 구금, 강제 이주를 겪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보호는 흔히 부재하거나 불충분하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 갱신주의 교회는 토착 지역과 카르텔 통제 지역에서 적대에 직면한다. 또한 세속주의적 불관용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신앙에 근거한 견해를 옹호한다는 이유로도 표적이 된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범죄 집단은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서 사실상 완전한 면책 상태로 활동하며, 지방 당국에 침투하거나 이를 대체하기도 한다. 폭력을 규탄하고 정의에 대해 설교하거나 지역사회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감시, 갈취, 교회 습격, 살해 협박, 납치, 살해 등 보복을 당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공적 역할 때문에 특히 취약하며, 위협 수법은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 집단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교회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씨족 억압

토착 공동체에서는 지역 지도자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관습이나 혼합주의 관습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가톨릭이라는 외피 아래 이러한 관습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체에 부여된 법적 자치권 때문에 국가의 감독은 제한적이다. 이 규범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강제 이주, 벌금, 사회적 배제, 서비스 이용 거부, 구금, 신체적 폭력, 재산 파괴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범죄 집단과 결탁한 곳에서는 취약성이 더욱 커진다.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후속 조치와 집행이 미흡해 많은 이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세속주의적 불관용

기독교인은 특히 공직을 맡거나 정치적·윤리적 논쟁에 참여할 때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는다.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이념 집단과 일부 당국이 이러한 참여를 억제한다. 교회가 범죄 세력과 관련된 분쟁의 중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생명, 가정, 성에 관한 신념을 직장과 학교를 포함한 곳에서 표현할 때 적대감이 높아진다. 교회 건물은 훼손되지만 수사는 드물고 피상적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법적·제도적 장벽이 양심에 따른 거부를 점점 더 어렵게 하여 기독교인 전문직 종사자들을 복잡한 윤리적·직업적 상황에 놓이게 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조직화된 폭력이 계속되면서 여성 살해, 가정폭력 증가, 인신매매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소녀들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명목 아래 인신매매될 수 있으며, 무장 단체에 의한 납치와 성노예화의 손쉬운 표적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토착 공동체에서는 강제결혼이 흔한 위협으로 나타났으며, 개종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학대도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과 소녀에게 폭력, 불안, 사회경제적 문제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여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압박 요인:

- 납치
- 강제결혼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남성

폭력과 조직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젊은 남성과 소년들은 갱단 강제 영입, 살해, 갈취의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 범죄 집단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사상 주입과 강제 모집이 위협 요인이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협박, 납치, 살해를 당한다. 남성들은 가정과 교회의 책임자로서 강한 압력과 폭력에 노출되며, 특히 지도자들이 벌금과 갈취 피해를 가장 자주 당한다. 이들은 지

역사회 활동과 불법 행위에 반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다. 토착 공동체 출신 개종자들은 구타, 괴롭힘, 공동체의 배척을 겪는다.

남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압박 요인:

- 납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사업·직장·노동 접근 제한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거주지 혹은 국가를 떠날도록 강요
- 정부에 의한 구금
- 양심에 반하는 군대·민병대 징집 및 복무 강요
- 폭력 - 사망 / 신체적 / 정신적 / 언어적



월드 와치 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6	30	71
2025	31	71
2024	37	68
2023	38	67
2022	43	65

멕시코의 전체 WWL 점수는 71점으로 유지되었지만, 폭력 점수는 14.6점에서 15.4점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은 이전 연도에는 거의 기록되지 않았던 범주의 사건, 즉 기독교인 구금, 성적 괴롭힘, 기독교인 소유 사업체 공격, 국외 강제 이주가 늘어난 데다, WWL 자료상 국내에서 살해된 기독교인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데서 주로 비롯되었다. 반면 여러 다른 폭력 사건 범주는 감소했다. 교회가 범죄 활동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식될 경우, 범죄 집단의 빈번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여러 토착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을 배척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국가의 세속주의 원칙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기독교적 표현에 대한 불관용도 증가하고 있다. 평균 압박 점수는 11.2점으로 '매우 높음'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조적 취약성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4년 10월 20일:** 토착민 권리 옹호자이자 치아파스주의 중재자였던 초칠족(Tzotzil) 가톨릭 사제 마르셀로 페레스 페레스는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왔다. 거둬진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를 마치고 나온 뒤 산크리스토팔데라스카사스(San Crist bal de las Casas)에서 오토바이를 탄 무장 남성 두 명이 차량에 총격을 가해 살해되었다(IACHR, 2024년 10월 24일).
- **2025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시위 중 과달라하라(Guadalajara), 톨루카(Toluca), 쿠에르나바카(Cuernavaca), 오아하카, 산루이스포토시, 레온(Le n)의 대성당들이 낙서로 훼손되었고 방화가 시도되었으며, 여성의 생식권에 관한 교회의 입장에 적대적인 구호가 게시되었다(Aciprensa, 2025년 3월 8일). 건물을 보호하려던 가톨릭 평신도들과 충돌도 발생했다.
- **2025년 4월 17일:** 게레로주 페틀라칼란싱고(Petlcalancingo)에서 공동체 당국과 주민들은 한 복음주의 남성이 소유한 정화조와 야외 화장실을 파괴했다. 이들은 그의 기독교 신앙과 전통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지역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수	살해된 기독교인 수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수	국내에서 집을 떠나거나 은신하도록 강요받은 기독교인 수
2026	163	39	40	138
2025	230	24	193	852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 기반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다이내믹스 보고서의 폭력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세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징적 반올림한 수치(10*, 100* 또는 1000*)가 표시되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동일한 원칙이 상징적인 숫자인 10,000*, 100,000* 및 1,000,000*에도 적용된다.

개인 영역

범죄 집단의 통제 지역에서 평화를 촉진하고 폭력을 거부하거나 범죄 생활을 떠난 기독교인은 감시, 협박,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들의 모임과 온라인 콘텐츠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토착 공동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집단에 속한 기독교인이 신앙을 전하거나 종교 자료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으며, 친족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적 교류는 감시되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생명, 가정, 성에 관한 성경적 관점이 양극화를 일으키며, 교단 간 적대는 개종자나 다른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을 겨냥한다.

가정 영역

조직범죄는 강제 이주와 아동 모집을 통해 기독교인 가정을 위협하고,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자녀를 표적으로 삼는다. 토착 공동체에서는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신앙에 따라 양육하지 못하도록 금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가 가족에게서 분리되거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기독교인 자녀들은 괴롭힘과 배척을 당하거나 신앙을 버리라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추방이나 구금 과정에서 가족이 흩어지기도 한다. 전국적으로는 생식권과 관련해 국가가 의무화한 일부 성교육 프로그램이 기독교인 부모가 신앙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를 제한해 왔다.

지역사회 영역

범죄 집단과 토착 공동체 당국은 종교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기독교인을 감시하고 심문한다. 카르텔 통제 지역에서는 특히 범죄 세력의 영향력에 저항할 때 갈취, 강제 협조, 보복을 당한다. 토착 공동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종교 관행을 거부했다는 이

유로 벌금을 부과받고 배제된다. 두 환경 모두 계약, 허가, 보조금 제공을 거부하는 경제적 배제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다. 일부 직장에서는 '비차별 정책'을 내세워 기독교인에게 양심에 어긋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가한다.

국가 영역

헌법 제24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공적·정치적 표현을 제한한다. 양심적 거부에 대한 법적 제한과 차별 혐의 제기는 신앙에 근거한 발언을 위축시킨다. 청년과 이주민을 지원하는 기독교 단체의 활동은 범죄 집단에 의해 자주 방해받지만, 국가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토착 지역에서는 관습법이 국가 차원의 권리 보장보다 우선하면서, 실질적인 보호가 제공되지 않은 채 각종 인권 침해가 자행될 수 있다. 모든 환경에서 부패와 결탁, 취약한 법 집행은 가해자들의 불처벌을 고착화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공적 영역의 기독교인 사이에 자기검열이 널리 퍼져 있다.

교회 영역

교회 지도자와 그 가족은 카르텔 통제 지역과 토착 지역에서 협박, 갈취, 강제 이주, 살해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며, 특히 공개적으로 문제를 규탄한 뒤 위험이 커진다. 범죄 집단과 토착 공동체 당국은 설교를 감시하며, '인정되지 않는' 교회의 예배는 처벌받는다. 폭력과 치안 불안으로 교회 활동이 점점 더 중단되거나 일정이 변경된다. 생명, 가정, 양심에 관한 신앙 기반의 가르침은 이념 집단의 면밀한 감시를 받으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 또는 '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고 공적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국제 의무 및 권리 침해

멕시코는 다음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4.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5.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CRC)

멕시코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토착 공동체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과 폭력을 겪는다 (ICCPR 제18조)
- 토착 공동체의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 (ICCPR 제18조 및 CRC 제14조)
- 기독교 지도자들은 감시를 받으며 활동이 면밀히 관찰된다 (ICCPR 제17조)
- 토착 공동체의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은 강제결혼의 위험에 처한다 (ICCPR 제23조, CEDAW 제16조 및 ICESCR 제10조)

멕시코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2024년 10월 타바스코주(Tabasco) 비야에르모사(Villahermosa)의 한 쇼핑몰에서 젊은 멕시코 무슬림 여성 에스트레야(Estrella)가 유럽 여성에게 폭행당했다(Infobae, 2024년 10월 25일). 가해 여성은 에스트레야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억겹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모욕했으며, 그의 몸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해 굵은 상처를 입혔다.



오픈도어선교회의 멕시코 사역

오픈도어선교회는 멕시코의 신자들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영적 지원: 교회 지도자를 위한 보안 및 지속 가능성 훈련, 성경기반 박해 대비 훈련, 기초 신학 과정
- 법적 권익 옹호: 인권 옹호와 협상에 관한 교육, 특히 토착 지역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한 당국 절차상의 법률 대리
- 경제적 역량 강화: 직업훈련, 워크숍, 종잣돈 지원,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지원
- 트라우마 돌봄: 치유와 재통합을 위한 치료적·성경적 상담



이 보고서에 관하여

- 이 국가 보고서의 내용은 오픈도어 인터내셔널(Open Doors International)의 조사 부서인 월드워치리서치(World Watch Research, WWR)가 수행한 상세 분석에 근거합니다. 이 보고서는 무료로 사용 및 배포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2026 Open Doors International.
- 50개 모든 국가 보고서와 WWL 산정 방법 (방법론)의 최신 업데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L 2026 보고 기간은 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입니다.

**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사진은 설명을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